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제1호 2004 (153~168)

地域에 대한 學習 內容 構成에 관한 硏究*

윤 옥 경**

The Contents Construction for Learning a Region*

Okkyong Yoon**

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학습이 가지는 문제점과 지역에 대한 개념형성에 작용하는 학생들의 지역인식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학습 내용을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학습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 우선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지역개념의 변화 경향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지역학습의 주요 요소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지역학습의 주요 요소는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의 정의, 지역의 형성, 지역의 체계이다. 지역학습이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중간적 수준의 학습지역을 설정하여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지역에 대한 보다 의미있는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학습을 위한 적절한 지역범위 선정에 있어 스케일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효과적 학습내용 구성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지역학습, 지역개념, 학습지역, 스케일, 지리교육과정

Abstract : This study begins with the interests of the problems in learning a region under the Korean National Curriculum in geography field and the perceptions on the region which affects students' formation of regional concep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problems in learning a region and to construct a new content for learning a region to improve the current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for student to establish a clear concept on a region in order to effectively learn a reg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how concepts on a region have changed and selects important elements in learning a region by considering a level of students' understanding. The important elements selected in this study are the definition of a region, the formation of a region, and the system of a region. By learning a real region established as a 'region for instruction' of a medium scale, students can reach an appropriate level of meaningful understanding of a region. This study found that an appropriate selection of scale in choosing the extent of a region was critical in success of effective organization of learning contents.

Key Words : learning a region, regional concept, region for Instruction, scale, geography curriculum

1. 서 론

'지역'은 지리학의 주요 연구 대상으로 지리학자들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역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지리학의 지역에 대한 관점도 변화된다. 이는 지역과 관련된 수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시대에 따라 지리학자들의 지역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지리학에서 지역이라는 용어는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용어로 지역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많은 논의의 핵심은 '지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었다. 지역에 대한 학습을 통해 결국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밝혀나가야 한다.

학생들이 최근의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과정에서 학습하는 지리교육 내용은 지역조사, 한국지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지리학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서울 오륜중학교 교사(Teacher, Oryun Middle School) seronm@hanmail.net

리, 세계지리, 계통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특히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다루는 지역지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교육에 대한 탐구는 지역지리 부분의 구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지역지리에 대해 사실적 지식의 나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적 지식에 대해 이해보다는 암기의 대상으로, 여겨 지역에 대한 학습이 의미를 상실한 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이에 지역에 대한 학습을 한 단계 승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지리 학습 내용을 그 지역의 계통적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조사와의 관련속에서 구성하고 각각의 학습 내용과 학습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지역지리, 계통지리, 지역조사의 세 내용이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모색하는 것은 지역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지역에 대한 학습은 어떤 지역의 사실적 지식의 학습보다는 '지역' 그 자체에 대한 학습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지리교육의 학습 대상인 지역은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다루어져야 하고 지역에 대해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리 교육 내용 구성 과정은 과거의 틀을 고수함으로써 지리학의 연구 성과나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학습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구성하여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학습의 한계와 지역의 개념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학습의 특징과 주요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내용 구성 틀을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지역에 대한 접근 방법을 파악하여 지역학습 내용구성의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여기서 1946년 교수요목기부터 현재까지 각 시기별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지역학습 내용의 골격을 이루는 학습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지역 개념이 가지는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학습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또 지역에 대한 학습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주요 요소를 학습하기에 적합한 중간적 스케일의 지역을 설정하였다.

2. 지리교육과정과 지역학습

1) 지역학습의 의미

본 연구에서 지역학습은 지리교육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학습으로, 지역에 대한 계통적 접근과 지역적 접근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보통 지역학습을 자신이 거주하는 주변에 대한 학습으로 한정하여 지역지리와 구분하고 있다.[1] 또 지역학습이라는 용어가 지역의 규모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대신 주변지역학습이라는 용어 사용이 제안되기도 한다.[2] 지역학습을 학생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주변 지역에 대한 학습으로 한정하는 경우 향토학습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의 지역은 단순히 지리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지역이라기보다는 교육적 의미로서의 지역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조성욱, 1999, 1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대해 스케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개념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즉 지역학습은 '지역에 대한 학습'으로서 지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계통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지역학습은 지역이라는 상황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Spencer and Blabes, 1993). 아동은 하나의 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community)에서 단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전 세계(world)에 이르는 다차원적인 시민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현재의 인식틀을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므로, 자연적 요소와 인문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지역의 모습은 학습의 기초로서 중요하다(Stoltman, 1990, 42).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시간과 공간에 놓여 있다. 인간의 마음과 언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그 맥락적 의미로 소통되는 것이다. 학습은 개인의 정신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참여하는 가운데 상호작용 속

에서 이루어진다. 즉 어떤 고정된 정신적 표상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능력을 기르는 것이다.[3] 지역사회의 환경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학습의 장(場)으로서 포스트 모던의 현대인들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면서 학습의 쾌락을 경험하게 된다(한준상, 2001, 14).

지역은 모든 지리적 현상의 맥락으로서 지역사회(local places)와 전 지구 체계(global systems)의 중간단계로 파악되며 지리교육에서 지역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단위로서 작용한다. 지역은 현재의 잇슈나 이벤트를 연구할 맥락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Stoltman, 1990, 29). 잇슈나 고려할 문제에 따라 의미있는 지역을 정의하는 방법은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지역에 대한 학습은 지리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지역 개념이 지리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연관되어 있다. 지역은 지리학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수많은 연구에서 연구 결과는 그것이 지역적 접근이든, 주제적 접근이든 지역 사례를 통해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즉 지역에 대한 연구는 지역을 배경으로 주제(topic)나 계통적인(systematic) 내용을 다루는 계통적 접근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지적(地誌的) 접근으로 나뉜다. 그러므로 지역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 대상에 따라 지역지리적 접근과 계통적 접근이 항상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 두 접근은 상호 포괄적인 이원성을 지니고 있다.

지리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대부분 '어디의 무엇에 대해 어떻게?' 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지역지리에 대해 흔히 지역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나열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대해 사실적 정보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지역의 사실적 정보는 지리적 사고와 개념 형성에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적 정보를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틀로 그 사실들을 엮어 낼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역에 대한 학습내용을 계통적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여 그 지역의 사실정보를 상세히 다루지 않은 방안은 그 지역에 대해 대표적인 인상만을 심어주거나 더 나아가서는 불충분하거나 왜곡된 인상을 가지게 할 우려도 있다(Healey and Roberts, 1996, 289-306).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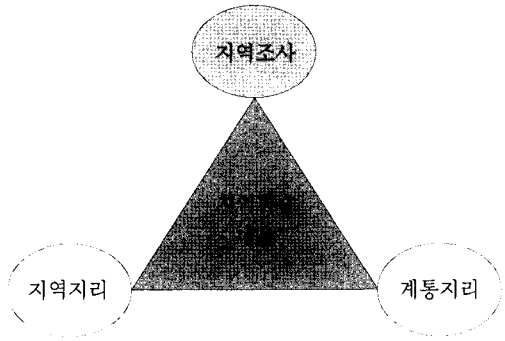


그림 1. 교육과정의 지역학습내용

러나 개별적 사실들은 다양한 공간적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지리적 사실은 장소와 지역의 관점에서 지구에 대해 이해하며 이를 위한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권정화, 1997, 55-57). 따라서 지역학습 내용은 지역지리와 계통지리의 통합을 통해 구성할 수 있으며 지역학습 과정은 지역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를 더할 수 있다. 즉 지역에 대한 학습은 지역지리적 사례들과 계통지리적 개념 틀을 내용을, 지역조사의 방법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림1은 지역지리, 계통지리, 지역조사 등 지역학습의 내용이 이들 내용을 포괄하는 지역의 틀을 바탕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지역개념과 지역학습

개념이란 한 그룹의 사물, 생각 혹은 사건을 분류하거나 범주를 정하는데 유용한 추상적인 단어나 구이다(Banks and Clegg, 1990, 88). 개념은 일정한 존재를 지시하는 의미체이며 관찰된 사실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다. 사물현상의 기본적이고 공통된 속성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개념이다(류재명, 1999, 247-251). 개념은 현상을 요약해서 파악하는 수단으로,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전이(轉移)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어떤 사물을 보다 일반적인 개념의 한 특수한 사례로 이해한다는 것은 한 특수한 사물을 배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면하게 될 그런 비슷한 사물들을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을 배웠다는 것을 뜻한다(Bruner, 1987). 개념화는 하나 이상의 공통특성에 따라 관찰결과를 분류하고, 구별되는 특징을

추상하고 일반화하며, 구별되는 특성을 기반으로 명명하는 과정이다. 개념은 사물의 전체적인 집합이나 그룹을 언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다. 그런데 개념에 따라 추상성의 정도가 각각 다르며 개념과 개념을 관계지어 구성되는 개념은 더욱 추상적이다.

지역은 지리학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고 추상성이 강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지역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는 것을 여러 상황에서 들어 왔을 것이다.[4] 이로 인해 지역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역'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개념의 전개와 실제 이용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리교육을 통해 지리학적인 지역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리학 내에서 '지역(region)' 개념이 '장소(place)', '공간(space)', '범위(또는 範域, area)' 등의 개념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지 검토함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지역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1) 지역개념의 혼란

지역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개념과 혼돈될 수 있는 장소, 공간, 범위 등이 사용되는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리학에서 '지역' 개념은 '장소', '공간', '범위' 등의 개념과 동시에 사용되거나 이러한 개념들을 표상하는 틀로 사용되어 왔다.[5] 지역은 일정 범위 내에서 의미있게 정의된 부분으로 이미 개념화된 뜻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area는 목적에 따라 지표면에 자연 경계나 행정 경계를 그어 선택한 일정 범위의 지역이다. area는 지표 공간에 특수한 표준을 적용하여 선택된 부분으로, 정의되는 표준에 관해서는 동질적이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간의 상호 관계나 결합력이 없다는 점에서 region과 구분되는 기하학적인 부분일 뿐이다(Whittlesey, 1954, 21-22). 둘 중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region보다는 area일 것이다. 지역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정의되므로, 내적 통합성과 외부 지역과의 구별 가능성 측면에서 약한 기준을 적용하면, 행정구역이나 한 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는 지역은 area와 동일한 수준에 머무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학에서 지역을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인식하자고 하는데 비해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특별한 개념 규정없이 area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金鍾旭, 1994, 4). 예를 들어 해외지역연구의 의미를 가지는 지역연구(area studies)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연구대상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공동체 연구, 한 도시나 문화집단의 연구, 하나의 국가 및 그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 관계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최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간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중심 연구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어 지리학의 기여가 기대된다. 지역연구는 지역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는데 지역문제는 지역의 제 요소가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장소(place)는 다분히 주관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실증주의적 연구보다는 현상학적 배경의 연구에서 선호되는 개념이다(Relph, 1976, 1-6). 지역이 객관적으로 정의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반면에 장소는 개인이나 사회집단의 느낌, 사회적·심리적 관계에 의해 파악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장소(place)에 대해서는 거부하기 힘든, 비공식적인(informal) 성격이 나타난다. 장소의 의미는 입지적인 위치나 기능적인 결절지보다는 감정적으로 의미를 두고 싶어하는 곳에 사용된다(Tuan, 1974). 동시에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여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이룬 곳을 장소(place)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6]

공간이 추상이라면 장소는 구상이다. 공간에 대해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공간은 장소가 된다. 공간과 장소의 개념은 둘의 관계 속에서 잘 정의될 수 있다. 강홍빈(1998, 169)은 도시의 공간이 장소들로 구성됨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간과 장소의 관계를 설명한다.

> "공간이 공존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양상이라면 장소는 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총체이며, 공간이 구조화된 체계로서 서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장소는 풍경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공간이 사유의 대상이라면 장소는 체험의 대상이다. 장소는 그래서 구체적이며 영역을 지닌다. 사람들은 한 장소로 '들어가고', '나오며', '머문다'. 그러한 장소는 일상성의 무대이다. 구체적인 장소 '안에서' 사람들은 일상

의 생활을 살아간다. 일상생활이 총체적인 것처럼 장소 또한 총체적이다. 일상의 '조그만 행위들 속에 거대한 사회구조가 섞여있다' 면,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장소 또한 사회의 구조와 교차된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인 힘과 과정은 장소를 생산하고 역으로 장소속에서 재생산된다."

장소에 대한 감정은 장소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 공간이 우리에게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공간은 장소가 된다. 공간이 직접적 경험에 의해 인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넓을 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화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공간적 관계를 인지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지역은 익숙한 장소를 잘 알고 나서 확장되는 좀 더 복잡한 장소로 인식되기도 한다(Hardwick and Holtgrieve, 1996, 65). 지표의 사실들은 구체적이고, 시간에 따라 공간에서 분석될 수 있으며, 장소에 따라 유사성과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비교하는 과정은 의미있는 지리학적 연구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지표 경관의 사실들을 수집하여 유형화, 체계화함으로써 지리적인 핵심 개념의 형성에 이르게 된다. 지역은 지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적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리학은 지표 공간에서 인간의 활동이나 개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인간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리학자들은 이를 위해 편의상 단위로서의 지역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지표면의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개념의 정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개념들은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결합되어 공간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 주고 있다. 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설정되는 지역은 연구목적이나 학습목적에 따라 설정의 단위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지역에 대한 이해는 지역의 여러 현상과 관련된 하위개념의 정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지리학자들의 관심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둘러싼 공간적인 환경이 삶의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역 개념의 전개

지역은 자연 현상과 인문 현상 등 지리적인 현상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 놓은 유기적인 종합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지역마다 '지역성' 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개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실제는 그 지역의 발전 과정과 문화 그리고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 의해서 그 특성이 형성되고 있다.

지역구분에 대한 관심은 지역에 대한 이해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졌고, 한 때 지리학자들의 연구는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McDonald(1972)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진 총체적인 지역을 추구했는데, 지역구분(regionalization)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복잡한 요인들을 정렬하고 비교하여 의미있는 한계를 형성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지역 구분이란 지표를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 세분한 카테고리로서 선정하는 기준이나 지리적 인식의 차이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즉 지역은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 진다. Hartshorne(1959, 12-21)은 지역구분보다는 지역적 차별화(areal differentiation)를 강조했는데 그에게 지역차라는 용어는 지역에 따른 개별적 현상들의 차이가 아니라 지표상에 있는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들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차이 나는 현상이 아니라 각종 현상이 구조적으로 상호 의존 또는 통합되어 형성해 놓은 지역 그 자체를 지리학자들의 궁극적 관심대상으로 여겼으며, 지역구분은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전통적으로 지역연구의 궁극적 목적을 지역성 구명이나 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전통 지역지리에서는 지역을 자연영력(natural forces)과 인간영력(human forces)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복잡한 결과물로 가정한다. 전통적인 지역 지리에서 지역의 독특성과 구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역지리가 이론없는 단순한 나열에 그쳤다는 점과 지역의 변화를 더 광범위한 국가적, 세계적 과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 자체에 국한된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지역의 고유성과 함께 광범위한 구조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이희연 · 최재헌, 1998, 561). 전통적인 지역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구조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 개성기술적(個性記述的)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지역지리 연구 관점이 등장한 것이다(서태열, 1989).

1970년대 무렵 계량 분석 방법을 이용한 지역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계량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등장하였다. 지역에 대한 관점은 재조명되었으며 다양하게 분화되었는데 인문 지리학 자체를 복지와 관련된 주제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 인간-자연의 구도로 지역을 바라보지 않고 지역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사회를 고려함으로써 지역의 개념을 계속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전개과정에서 '지역'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공간', '장소' 등의 용어가 재정의되어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우리들은 인간의 지각이나 관념, 의도 그리고 기술이 현실로 구현된 모습으로서의 공간을 접하고 살아간다. 결국 사람들은 보다 확장된 범위의 지역과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로컬러티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Johnston et al, 1990, 8). 그러므로 지역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집단들로 구성된 보다 광범위한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Johnston et al, 1990, 210-212). 전통적인 지역지리의 연구가 어떤 현상이나 패턴을 기술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과 달리 지역이 구성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Pudup, 1988). 이제 지역연구는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공간에 투영된 실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 집중되고 있다.

(3) 지역 학습과 지역 개념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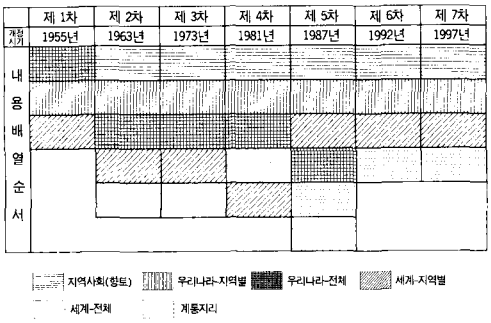
지역학습에서 지역이라는 개념은 지역계획이나 지리학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양의 다양한 정보를 조직하는데 있어 유용한 틀로 이용되어 왔다. 이는 세계가 특성이나 스케일면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불균등한 분포가 존재하므로 지역이라는 틀로 이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현실세계의 광대한 크기와 다양성을 단순화의 도구가 없이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지역적 접근방법은 경관요소를 다양한 축척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설정과 내용의 일반화 정도는 교사, 학생, 혹은 연구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역학습 과정에서 제시되는 지역들이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었는지, 또 그 기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검토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유의미한 기준을 정하여 지역을 구분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Lambert, 1980).

지역은 인문적인 내용과 자연적인 내용으로 구분되는 지리 교육 내용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틀이 된다. 또 어떤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공간적 정보는 매우 중요하며 사회문제의 공간적 요소를 지역적 틀에 비추어 보면 보다 잘 이해된다(남상준, 1999, 244-250). 이는 문제 해결 학습과정에 지역적 접근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역은 단순히 지표면을 구획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들을 고찰할 수 있다. 지역개념은 장소에 대해 인식하는데 이용된다. 즉 지역적 접근방법은 장소에 대해 범주화고 구조화하는 방법이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의 물결속에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오늘날 학생들의 생활은 과거와 확연히 구분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지리교육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교육적 관심과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역으로 오늘날의 교육현상은 오늘날의 시대상황과 교육풍토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지리교육의 구성은 지리적 개념의 획득과 더불어 문제의 인식, 문제 해결 방안의 모색을 통해 고차적인 지리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장소나 지역에 대한 학습내용은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장소들의 고유한 특징의 나열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은 공간상에 상호 관련된 다양한 구성요소들과 이들의 관계속에서 존재하는 조직체로서 개념화된다(이희연 · 최재헌, 1998, 569).

3)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의 변화와 지역학습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 지역에 대한 학습은 지역조사 관련 내용, 지역에 대한 계통적 접근, 지역에 대한 지지적 접근(지역지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지교육(地誌 敎育)은 지리학 연



출처 : 교육부, 2000,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 (1946-1997)에서 참조하여 구성함

그림 2. 우리나라 교육과정 시기별 지리교육 내용 변화 (중학교)

구 동향과는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변화를 거듭해 왔다(김일기, 1983). 즉, 어떤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어떤 순서로 배열하여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내용이 반복적으로 교육과정에 등장해 왔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접근방식과 지역에 대한 학습 내용 및 학습 방법에 대한 검토과정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지역과 관련된 용어사용에서 비롯되는 혼란을 살펴볼 때, '지역학습', '지역지리학습', '지역조사' 등의 용어는 각각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다. '지역학습'은 학생의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학습으로 지역 정체성 인식과 지역애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지리학습'은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 세계 여러 지역의 생활 등 다양한 지역들의 정보를 습득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차 등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역조사'는 기능습득에 강조를 두며 지리학의 지역 연구 방법을 소개하여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경우에 사용되는 지역의 의미는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학교의 지역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구한말 신교육의 시작과 함께 지리는 주요 교과목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수요목기(1946-1954)에는 이웃나라 생활(중 1), 먼나라 생활(중 2), 우리나라 생활(중 3)로 구성되었다. 사회생활과가 도입된 제 1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지리, 역사, 공민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걸쳐 학습하였다. 이 때 지리영역은 '우리나라 지리'와 '다른 나라 지리'로 구분되었는데 '다른 나라 지리'는 세계를 대륙별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국가 단위로 다루었다. 1963년 제 2차 교육과정 이후 주변 지역에 대한 학습내용으로서 '향토' 단원이 등장했다. 제 2차부터 제 4차에 이르는 기간동안 지리는 중학교 과정에서 1학년에 배치되어 학습되었으나 제 5차 이후 통합체제로 전환되어 지리, 역사, 일반사회가 혼합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 시기에 걸쳐 우리나라 각 지역과 세계 각 지역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그런데 내용의 배열 순서에 있어 우리나라 지리가 먼저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지리가 제시되었다. 제 5차 교육과정 시기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계통적 내용이 다루어 졌는데 항상 우리나라 각 지역에 대한 내용의 다음에 제시되었다. 그런데 세계 각 지역에 대한 내용은 세계 전체에 대한 계통적 내용을 다룬 후 각 지역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 반대 순서로 제시하기도 하여 우리나라나 세계 전체에 대한 학습과 하위 지역들 각각에 대한 지역적 접근 내용 간의 제시순서에 일관성이 없었다. 즉 지역적 접근과 계통적 접근의 제시 순서와 관련하여 시퀀스를 고려하지 못한 내용구성의 한계를 가진다.

제 6차 교육과정 이후에 1, 2학년 과정에서는 지역별로 우리나라와 세계를 다루고 3학년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 전반에 걸친 계통적 주제를 다룸으로서 우리나라와 세계 전체를 단위로 하는 계통적인 내용이 삭제되었다. 학습내용은 지역지리적 내용(우리나라, 세계)을 학습하고 나서 계통지리적 내용(공업, 인구, 도시, 자원, 환경 등)을 학습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지역학습에서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적 접근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세계를 상호 비교하거나 관련짓기 위한 학습내용 구성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 또 지역조사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계통지리나 지역지리 내용의 기초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실제 교수학습과정에서는 형식적인 지역조사학습이 이루어져 왔다. 또 교육과정을 통해

다루는 지역은 우리나라를 중부, 남부, 북부 지방으로, 세계를 대륙별로 구분한 지역들인데 이러한 틀 대신 지역의 다양한 스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향토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의 내용은 지역구분의 논리에 기초한 학습 내용으로 이런 지역 구분방식은 세계화, 지구화를 반영하는 지구적 차원의 다양한 인간 생활 모습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학생의 발달수준과 지역 개념의 특징을 고려한 계열성있는 지역스케일의 선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 지역 학습 관련 내용은 크게 지역 조사 방법, 지역 지리(한국지리, 세계 지리), 계통 지리(자원, 공업, 인구, 도시 등)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지역지리 학습과정에서 지역을 구성하는 제 요소를 살펴보면 지역 지리적인 요소와 계통 지리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고 지역조사방법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밝히게 마련이므로 이 세 내용은 상호보완적이라 하겠다. 또 계통지리 학습과정에서는 지역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지역조사, 지역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계통지리 각각의 내용은 상호 밀접한 관련 속에서 파악되어야 통합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지리를 구성하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내용의 관련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지리에서 다루는 지역은 세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생활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자연, 인문, 환경의 패턴과 프로세스의 이해를 통해 도달 가능하다. 그리고 대기오염, 인구 분포 등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구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다.[7)]

세계 여러 지역의 사례들은 지역 학습의 주요 소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므로 다문화 교육과 인간 - 환경에의 관련성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개발, 무역의 변화, 인구분포, 토지이용, 인구이동, 자연재해 등은 조직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학습주제이다. 현대 사회는 위험사회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러한 위험은 전 지구적 스케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지역적 스케일을 벗어나 보다 큰 스케일, 전 지구적 스케일의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연구는 국제화와 지구촌화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국가적 정체성을 넘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은 지역의 고유성과 장소성의 이해로 귀결되므로(문순홍, 1999) 지역에 대한 학습은 다양한 스케일에 걸쳐 있는 지역의 특성을 유동성있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지역학습 내용의 구성

1) 지역학습의 주요 요소

원활한 지역학습을 이루려면 우선 지역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학습의 내용은 지역개념의 변화 경향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요소를 추출하여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지역학습의 주요 요소는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의 정의, 지역의 형성, 지역의 체계이다. 첫째, 지역개념의 기본요소인 지역의 정의와 관련된 요소는 지역의 범위, 지역의 위치를 포함한다.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범위가 달라지며 지역의 위치에 따라 지역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역동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로 지역의 형성을 선정했다. 지역의 형성과정에서 주민의 역할과 태도는 학생들이 현실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체계와 관련된 요소는 지역의 경제적 부문과 관련이 깊다. 지역의 체계는 지역 간 상호 작용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며 각 지역의 기능 및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구조가 된다(그림 3).

지역은 세계가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다양한 스케일을 가진다. 이 때 스케일은 단순히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인지하는 장소, 환경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Marston, 2000). 또 어떤 한 지역에 대해 고정적인 공간적 스케일을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규모의 스케일이 상호작용하면서 지역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Sm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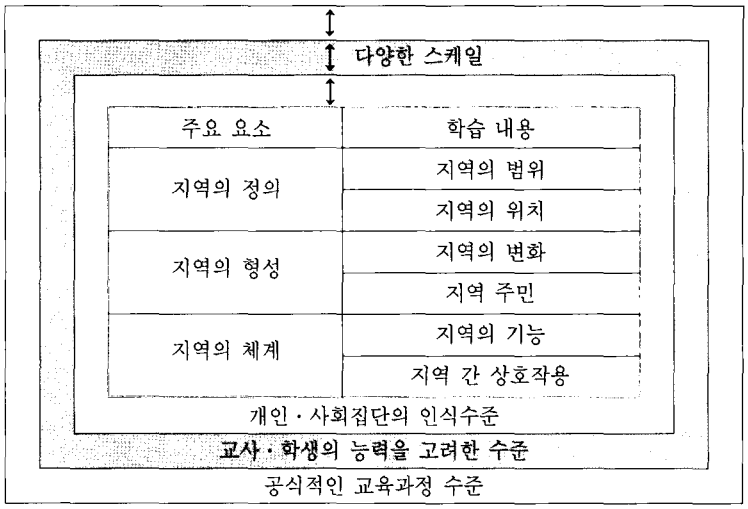


그림 3. 지역에 대한 주요 학습내용 구성 틀

1993). 지역은 정의되는 기준에 따라 범위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개념은 세계 이해에 개방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역개념을 통해 지역을 정의하는 유의미한 기준을 찾아내고 다양한 스케일의 지역이 부분과 전체의 틀 속에서 이해된다는 점을 학습하면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다.

(1) 지역의 정의

지역학습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가의 기준은 지리학에서 전개되어 온 지역에 대한 연구 경향의 변화과정에서 추출된다. 지역은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지역은 구체적인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정의하거나 구분할 때 어떤 기준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지역이 차지하는 위치는 지역이해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여기서는 절대적 위치뿐 아니라 상대적 위치 개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을 정의할 때 그 특성을 결정지을 기준을 선택한다. 지구상의 모든 지점(spot)은 독특하고 다양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어떤 지역(area)의 총체성(totality)을 모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부질없는 것이다. 지역의 복잡성(areal complexity)을 파악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역(region)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주요 특징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은 일련의 선택된 특징들로 정의된다(Broek et al, 1980, 15-16). 최근까지도 미국의 지리교육에서 지역은 선정된 기준을 중심으로 통일성을 나타내는 지리학습의 기본 단위로 간주되고 있다(Hardwick and Holtgrieve, 1996, 300-305). 여기서 사용되는 기준으로는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도시적인 특징 등 다양하다. 즉 지형에 따라,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 경제적 유사성에 따라 지역이 규정된다. 많은 지역들은 한 가지 특징보다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은 지역의 이름을 접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붙여진 이름인지 파악하는 것이 지역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 지역의 이름은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곳에 영향을 주는 세력의 이름을 따기도 하는데 무엇인가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붙여진다.

지리학적으로 지역(region) 이라는 용어에는 일정 크기의 범위(area), 특정 기준에 비추어 등질적인 범위, 지역적으로 관련된 특징으로 주변지역과 구분되어 내적 응집력을 갖는 범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리학은 지역을 비교 연구하여 특징을 시각화한다. 차이점이 뚜렷이 나타나는 두 지역의 비교분석시 사진과 지도는 효

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Cressey, 1968). 공간의 패턴은 다양한 규모를 가지며 지리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는데 특히 사회적 적합성(social relevance)를 가진 패턴, 시사를 얻을 수 있는 패턴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중요하다(Graves, 1984, 54). 이렇게 주변지역과 구분되는 특성을 찾아내는 과정은 지역을 정의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다.

(2) 지역의 형성

지역학습에서 지역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학습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지역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지만 이 속에는 과거와 연결된 지역 형성 과정이 있으며 이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지역에 대한 이해를 완성할 수 있다. 또 미래의 지역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학생들이 장차 살아갈 삶을 계획하는 데 주요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

개념 형성과정에 비현실적이고 틀에 박힌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흥미, 관심을 유발시키지 못한다. 개념은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를 제시한다면 그 개념은 설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즉 지역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으로는 지역개념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지역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은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곳에서의 생활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매스컴에서 다루어지는 지역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지역에 대한 학습에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입장과 의견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집단의 문화가 존재하는 곳에는 그 집단을 반영하는 공간이 나타난다. 혹은 역으로 공간에는 사람들의 문화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지역을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산물로 인식하는 프랑스적 전통과 관련된다. 지역은 심리적인 현상으로 특정공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형성되는데 즉 어떤 집단이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구현하는 특별한 문화와 주민들의 공통된 의식에 바탕을 둔다. 이 (문화)지역은 개별적인 관점보다는 집합적으로 공유된 의미의 관점에서 접근된다(Gilbert, 1988).

지역의 형성과정에는 지역의 자연적 조건에 따른 인간의 적응양식이 작용한다. 지역 주민의 의식은 지역변화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다. 지역의 각종 기능은 지역 변화의 경향에 따라 부문별로 다양한 양상을 띤다. 지역학습 내용이 이러한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틀로 구성됨으로써 학생들은 지역의 변동과정과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을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과 연관시키게 된다.

(3) 지역의 체계

지역학습의 주요 요소 중 '지역의 정의'가 다소 등질적인 지역의 성격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지역의 체계'는 지역 내, 지역 간 상호작용과 지역의 기능적 분화와 관련된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속에서 형성,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교통, 통신의 발달로 지역 연계의 폭은 증가하고 있다. 지역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유한 기능을 가지지만 최근 지역 연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기능은 보다 복잡한 특성을 나타낸다. 지역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이 보다 광범위한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는 과정은 지역간 교통망, 물류, 인구이동 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지역학습 과정에서는 이러한 지표를 학생들의 이해와 흥미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학습은 지역 간 연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학생들의 생활범위가 점차 확장될 것이라는 점에서 강조될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지역, 타 지역에 대한 학습에서는 호기심 유발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자신이 속한 지역과의 차별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향에서의 학습전략은 타 지역의 특성이 자신이 속한 지역과 어떤 상호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분포라는 사실을 단순히 기술하고 분석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들의 지역적 차이에 관한 사실들이 지역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8] 지역에 관한 사실들의 관계짓기 없이 학습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파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지역을 위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의 가치·태도 형성에도 기여한다. 지역학습과정에서는 다양한 스케일의 지역을 통해 다양한 자연환경, 다양한 인간활동, 문화, 사회-경제적 체계, 발달단계와 지속성 등을 학습하게 된다. 흥미있고 시사성 있는 사례 지역을 통해 학생들은 공공 생활, 직업 활동, 개인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범주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게 되어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학습지역'의 설정

지역학습은 지역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측면을 학습하는 과정이므로 지역의 주요 요소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다루게 된다. 지리교육과정에서 지역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인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리 학습 내용이 구성된다. 지역이라는 개념은 사례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며 지역지리는 지역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재료이다. 학습 경험을 설정할 때 하나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경험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양한 지역의 사례를 통해 지역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Tyler, 1987, 61).

지역학습 내용 구성을 위해 추상적인 지역개념을 고려한다면 막연함에 부딪히게 된다. 오히려 어떤 구체적인 지역을 조사하면서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다. 만약 지역변화라는 것을 학습한다고 할 때 특정 지역을 상정하지 않고 생각해 본다면 학습내용도 추상적이 될 수 있다. 혹은 학생들에게 추상적인 어떤 내용을 구체적 사례없이 가르칠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게 마련이므로 학생들마다 다른 이해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교과서의 서술방식에 대해 어떤 지역의 사실들 위주로 나열하였거나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요약 정리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즉 학생들의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중간 사고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실세계와 학습내용간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류재명, 2002b). 이를 위해 지역에 대해 지역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보다 실질적 의미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상의 의미를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국한하여 거기서 나타나는 사실적 정보와 사건으로 한정하는 접근은 지역학습을 편협하게 축소할 수 있다. 지역학습에서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 접근하는 방식은 보다 확대된 지역의 틀 안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고 관련짓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개념을 정립하는데는 주변 지역 사회라는 한정되고 좁은 공간보다는 지역학습의 주요 요소를 담고 있는 중간적 스케일의 지역을 학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지역은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교육과정이나 사회, 국가적으로 공식화된 지역의 중간적 수준의 지역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습지역'이다.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지역 스케일은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학생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 의미있는 학습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학습지역은 학습목적에 따라 스케일의 조정이 가능하고 교사와 학생의 인식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역학습 내용을 구성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의미한다. 주요 지역 학습 요소를 포함하는 학습지역의 스케일은 지역학습의 효과적인 방법인 답사[9]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규모이어야 한다. 다양한 스케일에 따라 인식되는 지역을 일상적 지역, 학습 지역, 공식화된 지역으로 구분하여 그림 4와 같이 정리하였다.

(1) 일상적 지역

일상적 지역은 개인-집단(individual-group)에 의해 국지적으로 인지되는(local-perceptive, vernacular) 장소, 공간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 산물이며 주민의 내적 요구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며 개인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하는 것은 대개 일상적 지역의 맥락이다. 때로는 주민의 요구와 외부인의 영향으로 새로운 지역성이 형성되기도 한다. 일상적 지역은 매일의 생활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는 지역으로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장소에 대한 인상 혹은 감각에 의해 형성된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 정체성은 개인차가 크고 주관적이며 편협하거나 지나친 지방색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 스케일은 현실적으로 장소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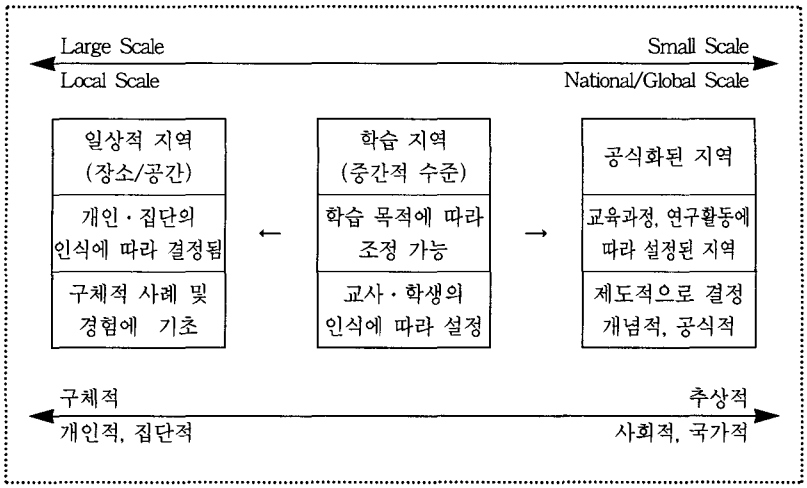


그림 4. 지역에 대한 주요 학습내용 구성 틀

은 인식의 틀을 넓힐 수는 있지만 학습 내용 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공통적인 기반을 가지는 지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지역에 대한 학습 내용과 학생의 일상적인 경험은 학습 과정에서 관련을 맺으면서 학습효과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학습 내용을 구성할 때 단순히 지리적 사실을 제공하는 지리교육을 탈피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인 논리를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과 관련된 학생의 경험은 범위가 제한적이고 비정기적이며 학생의 성향이나 가정의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2) 학습 지역

학습지역은 학습을 위해 시범적으로(experimental) 설정할 수 있는 중간적 스케일의 지역으로 답사를 통해 지역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지역이다. 이러한 스케일의 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형성해 온 그 지역 주민의 문화와 경제생활 양식이 결합되는 현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인식과 행동을 살펴보고 지역의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은 지리 교육과정을 통해 공식화된 기존의 지역구분에 따른 지역을 접하게 되지만 지역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들은 일상 생활속에서 개인으로서, 사회집단의 일원으로서 지역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여 학습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보다 집중된 교육의 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습하는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간적 수준의 학습지역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은 의미있고 효과적인 지역학습의 관건이 된다. 이는 학습 목적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인식과 능력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한 수준의 지역이어야 한다.

학습지역은 실제 학습 내용에 따라 지역을 설정하며 지역의 규모를 조정한다. 지역학습의 내용에는 주로 구체적이고 경험 범주에서 이해되는 지역범위를 다루면서 학생과 교사가 현장답사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스케일을 사용한다. 학습지역은 지금까지 인식되고 있는 장소(place)와 지역(region)의 중간단계의 스케일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한 지역 학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리적인 주요 개념과 학습내용은 주변 지역을 넘어서 타 지역에 대한 학습과정에서 추출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중간적 수준의 학습지역을 통한 새로운 학습 내용과 학습 모형이 요구된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주변 지역에 대한 학습은 학생들의 공통적 경험에 바탕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학습에서는 학생들마다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할 수 있다. 이 때 학생들에게 학습지역을 제시하여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정리된 개념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이력이 커서 지역의 본질을 파악하게 된다. 또 지역의 본질적인 특징을 파악함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주변 지역에 적용하게 함으로서 지역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 결국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타 지역에 대한 학습은 순환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3) 공식화된 지역

공식화된 지역은 공식적(formal), 제도적(institutional)인 스케일의 지역으로서 학계와 교육과정에서 구분하고 설정하는 지역이다. 현재 교과서에 사용되는 지역 구분은 이러한 공식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역은 역사적 배경을 갖추고 있으며 추상적 범위를 포함한다. 공식적인 지역은 집합적(collective), 법적(legal), 정치적(political)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관습적이고 추상적 개념에 의해 구분되는 범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은 지리학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지역구분 방식이며 실제 사회의 작동에 기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학계의 연구는 대부분 이러한 공식화된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정책적인 접근과정에서도 제도적인 스케일의 지역은 기본적인 틀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러한 틀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적 논리나 사회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며 학생의 발달수준에 따라서는 대부분 흥미롭게 여기지 않는 내용이다. 공식화된 지역은 복잡한 형성과정을 거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개념을 정립하는 단계에 있는 초보적인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소재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인식과 공식화된 지역의 틀로 짜여진 지리 교육의 주요 개념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식화된 지역의 틀을 보완할 지역 스케일이 추가되어야 한다.

4. 요약 및 결론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개인이나 집단으로서 지역에서의 삶을 의미있게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리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은 학습의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 대한 학습 내용은 학습자와 교사가 지역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과 지리 교육의 관점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지역학습이란 지역에 대한 학습을 말하며 지역에 대한 지역지리적 내용과 계통지리적 내용을 지역조사방법을 통해 파악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지역학습에서는 지역의 설정에 있어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다. 지역학습 내용은 지역사회조사, 한국지리, 세계지리로 구분되어 다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은 하나의 스케일에 국한된 정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은 일반화된 결과적 지식을 제공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학습 내용에 지역의 역동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 지역학습 과정에서 지역조사 방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므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학생들은 명시적으로 지역에 대한 개념 정립 기회가 없어 교육과정에 제시되는 지역에 대한 학습에서 많은 혼란을 가지게 된다. 이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정립된 지역 개념을 반영하며 지역학습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추출하였다.

지역은 더 이상 하나의 스케일에 국한된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스케일에 걸쳐있는 역동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중부지방, 수도권 등의 지역스케일은 학생의 수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역조사를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지역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역 이해를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이 인식할 수 있는 스케일의 중간적 수준의 학습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학습 내용을 구성하면 그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의 변화과정, 그 원인을 밝히고 지역간의 연계망을 파악하여 통합 내지 발전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준에서 학습 내용 선정은 지역 내 주민들의 생계는 물론 각종 경제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의식과 활동,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 자연환경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현장감있게 학습할 수 있어 보다 풍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 보다 효과적인 지역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적 수준의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역연구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학생들의 지역 개념과 인식에 대한 조사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학습의 틀은 기존의 교육과정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원활하고 융통성 있는 학습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註

1) 지역학습을 학습자의 직접 경험과 조사가 가능하고 학습자의 생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지역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관한 용어는 향토교육, 향토학습, 지역학습, 지역사회학습, 내고장학습, 지역연구, 향토지리 등으로 다양하다.
2) 조성욱(2002)은 지역학습대신 주변지역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지역학습이라는 용어가 지역의 규모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고 '주변지역 학습 - 한국지역 학습 - 세계지역 학습' 등 규모의 변화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변은 학습자를 주체로 하는 둘레의 의미로 해석한다.
3) 지역학습이 사실적 지식의 나열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황에 참여함으로서 수행능력을 기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볼 수 있다(Lave and Wenger, 2000, 8).
4) 지역이라는 용어는 행정이나 지역개발 등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지역감정'은 지역의 역사와 복합적인 주민의식을 포함하며, 중앙에 대비되는 표현인 '지방'이라는 용어 또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지역개념에 대한 혼란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행정 구역과의 혼용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은 제도적, 정치적인 단위로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각종 자료들이 행정구역을 따라 수집되므로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5) 영국적인 전통에서는 place가 지역(region)의 의미와 차이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Johnston, 1996).
6) Lukermann은 장소의 가치를 평가했는데 즉 장소는 특정 위치를 가지고 자연과 문화의 통합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상호관련된 체계 내에서 독특성을 가진다. 장소는 변화의 역사-문화적 과정에서 나타나며 국지적으로 결집된 힘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소는 대체로 주관적이지만 환경을 주의깊게 관찰하거나, 지역의 형식적인 개념을 발달시킬 때 또 다른 장소와의 경관을 비교할 때 사용된다(Natoli, 1994, 15).
7) 이와 관련하여 지리교육의 주요 잇슈는 세계화된 상황에서의 학습 전략(Hill, 1994)과 환경교육(McKeown-Ice, 1994)에 집중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지역지리교육에서 지역을 세계화, 환경 등과 관련된 잇슈 중심의 내용으로 교재를 구성하기도 했다(Lidstone, 1995).
8) 지역적 관계란 어떤 현상의 중요성이 동일지역에 존재하는 다른 현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현상과는 공간적 연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Hartshorne, 1939, 415).
9) 답사는 학생들이 관찰하게 되는 경관이 인문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관련·연결된 것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다. 학생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는 경관을 통해 장소감(sense of place)을 갖게 되고 경관 감상, 독도, 정보 기록, 스케치 기능을 기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답사과정에서 학생은 수동적인 자세로 경관을 읽고 해석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어 환경, 사회, 정치적 갈등이 존재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Job, 1999, 15). 그리고 관찰을 통해 그 경관이 형성된 인과관계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도 나타난다. 또 경관과 관련된 자연환경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의 역할과 요소간의 관계에 주목하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틀 속에서 관찰해야 한다. 전체와 부분을 함께 조화를 이루어 관찰해야 하는데 즉 전체적인 조망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요소를 상세히 관찰할 것인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文 獻

강홍빈, 1998, "근대화의 도시풍경: '신주작대로' 기행," 한국도시론, 한국도시연구소편, 박영사, 서울, 166-248.

교육부, 2000, 초·중·고등학교 사회과·국사과 교육과정 기준(1946-1997).

권정화, 1997, 지역인식논리와 지역지리 교육의 내용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金鍾旭, 1994, "世界化를 위한 地域 硏究와 地域 敎育," 地理敎育論集, 3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15.

김일기, 1983, "地誌 敎育의 諸問題," 地理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석천 이찬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595-613.

남상준, 1999, 地理敎育의 探究, 교육과학사.

류재명, 1998, "지리교육내용의 계열적 조직방안에 관한 연구," 지리·환경교육, 6(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1-18.

_____, 1999, 지리교육철학강의, 한울, 서울.

_____, 2002a, "학생의 일상생활경험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리수업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3), 1-16.

_____, 2002b, "도시지리교육에서의 학습활동 개발에 관한 소론," 지리과교육, 4,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19-24.

류제헌, 1987, "美國 地理學에 있어서 地域槪念의 發達," 지리학논총, 14,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345-358.

문순홍, 1999, "시간, 공간 그리고 생물 지역론," 문순홍 편저, 생태학의 담론, 솔출판사, 290-331.

서태열, 1989, "지역지리학 쟁점의 재조명: 1950-1989," 지리교육논집, 2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80-91.

손명철, 1995, 産業化의 進展에 따른 地域變化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기석, 1983, "地理學硏究와 槪念에 대하여," 地理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석천 이찬박사 화갑기념논문집), 81-92.

이영민, 1999, "지리교육의 기본 개념: 지리교사들의 인식과 재정립 방향의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4(4), 281-293.

이희연·최재헌,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4.

조성욱, 1999,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지역학습'의 역할," 사회과학교육, 3,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사회교육연구소.

_____, 2002, "지리교육에서 주변지역학습의 교육적 의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2), 25-40.

한준상, 2001, 학습학, 학지사, 서울.

Bruner, J. S., (李烘雨 譯), 1987, 知識의 構造, 서울 : 敎育科學社, 서울.

Graves, N. J. 저, (이희연 역), 1984, 地理敎育學 槪論, 교학연구사, 서울.

Lave, J. and Wenger, E., (전평국, 박성선 옮김), 2000, 상황학습, 교우사, 서울.

Tyler, R., (이해명 역), 1987,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 교육과학사, 서울.

Banks, J. A. and Clegg, A. A., 1990,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Fourth edition), Longman.

Broek, J. O. M. *et al*, 1980, *The Study and Teaching of Geography*,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

Bunce, V.(ed.), 1994, *World Geography : case stud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laval, P. (translated by Ian Thompson), 1998, *An Introduction to Regional Geography*, Blackwell Publishers.

Cressey, G. B. , 1968, The Comparative Method in the Analysis of Geographical Regions, in Morris, J. W. (ed.), *Method of Geographic Instruction*, 140-148.

Daniels, S., 1992, Place and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Geography*, 77, Geographical Association, 310-322.

Entrinkin, J. N., 1994, Place and Reg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2), 227-233.

_____ , 1996, Place and Region 2,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2), 215-221.

_____ , 1997, Place and Region 3,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1(2), 263-268.

Geography Education Standards Project, 1994, *Geography for Life.*

Gilbert, A., 1988, The new regional geography in English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 208-228.

Hardwick, S. W. and Holtgrieve, D. G., 1996, *Geography for educators : standards, themes, and concepts*, Prentice Hall.

Hartshorne, R., 1939, *The Nature of Geography* published for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_____ , 1959,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eography*,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Healey, M. and Roberts, M., 1996, Human and

regional geography in schools and higher education in Rawling et al (eds.), *Geography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289-306.

Herod, A., 2003, Scale : The Local and the Global, in Holloway, S. L. et al (eds.), *Key Concepts in Geography*, SAGE Pub. 229-247.

Hill, A. D., 1994, Geography Instructional Materials for Standards-Based Education, in Bednarz, R. S. and J. F. Peterson (eds.), *A Decade of Reform in Geographic Education: Inventory and Prospect*, NCGE, Indiana, 37-47.

Job, D. , 1999, *New Directions in geographical fieldw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Johnston, R. J., 1996, A Place in Geography, in Rawling, E. M. and Daugherty R. A.(eds.), *Geography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59-76.

Johnston, R. J., Hauer, J. and Hoekveld, G. A. (eds.), 1990, *Regional Geography*, New York : Routledge.

Lambert, D., 1980, Drawing boundaries around a conurbation - an exercise in a 'new' regional geography, in Walford, R. (ed.), *Signposts for geography teaching*, 45-51.

Lee, R., 1983, Teaching geography : the dialectic of structure and agency, *Journal of Geography*, 82(3), 102-109.

Lidstone, J. (ed.), 1995, *Global issues of our ti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ston, S. A., 2000,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a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2), 219-242.

Matthews, M. H., 1992, *Making Sense of Place : Children's understanding of large-scale environments*, Barnes & Noble Books.

McDonald, J. R., 1972, *A Geography of Regions*,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McKeown-Ice, R., 1994, Environmental Education : A Geographical Perspective, in Bednarz, R. S. and J. F. Peterson (eds.), *A Decade of Reform in Geographic Education: Inventory and Prospect*, NCGE, Indiana, 59-65.

Minshull, R., 1967, *Regional Geography* Aldine Publishing Company, Chicago.

Murphy, A. B., 1991, Regions as Social Constructs: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5, 22-35.

Natoli, S. J., 1994, *Guidelines for geographic education* and the fundamental themes in geography, Bednarz, R. S. et al (eds.), *A Decade of Reform in Geographic Education: Inventory and Prospect*, NCGE, Indiana, 13-22.

NCGE and AAG, 1984, *Guidelines for Geographic Education -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Pudup, M. B., 1988, Arguments within Region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3), 369-390.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imited, London.

Smith, N., 1993, Homeless/global: Scaling places, Bird, J. et al (eds.), *Mapping the Futures*, 87-119.

Spencer, C. and Blabes, M., 1993, Children's Understanding of Places: The World at Hand, *Geography*, 78, Geographical Association, 367-373.

Stoltman, J. P., 1990, *Geography Education for Citizenship*, ERIC.

Thrift, N., 1990,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1,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4, 272-279.

_____ , 1991,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2,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5(4), 456-465.

_____ , 1993, For a new regional geography 3,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7(1), 92-100.

Tuan, Yi-Fu, 1974, Space and place : humanistic perspective, *Progress in Geography*, 6, 233-246.

Whittlesey, D., 1954, The regional concept and the regional method, in James, P. E. and C. F. Jones (eds.), *American Geography : Inventory and Prospect*, Syracuse University Press.

Zelinsky, W., 1980, 'North America's Vernacular Reg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wrica. Geograoher.*, 70(1), 1-16.

최초투고일 04. 02. 12
최종접수일 04. 03. 16